

# 홍준표, 두바이서 '대구 미래 50년' 그린다

〈대구시장〉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  
K-2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 연계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 설계를 위해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장길에 오른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바이 현지에서 대규모(공공주도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시찰했다고 대구시가 21일 밝혔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K-2 공항 후적지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로 개발해 대구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월드시티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한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창의적 발상과 혁신의 실행 과정 및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하고 대구시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두바이 합틀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서는 두바이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설명과 대구의 K-2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와 현지 시찰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비즈니스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호수와 물길

로 이루어진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과 다양한 활동이 형성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구시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와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운영되는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과의 연계와

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및 기업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특히 세계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첨단기술(AI, 메타버스 등)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이끄는 서비스 및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와 현지시찰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2공항 후적지의 비전과 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고, 지난해 10월에 착수한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세부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바이처럼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공항 후적지를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조성해 대구의 미래 50년의 대변혁을 이끌어 가는 신성장 거점이 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영광군

###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7천5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각 시군의 지방세 수확, 세외수입 징수, 납세자 편의시책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 3개 분야 32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군민들의 성숙한 지방세 납세의식이 더해져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양시

### '다산안전대상' 우수기관 선정

광양시가 전라남도 주관 '2022년 다산안전대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

'다산안전대상'은 전남도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재난 예방과 대응,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로, 개인, 단체, 시군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광양시는 평가대상인 안전문화운동과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1위'로 평가돼 안전문화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된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울산시

###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매년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로 기업들을 파견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징코텍 주식회사 등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선정됐으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한다.

파견 기업은 연계된 바이어와 베트남 현지에서 1:1 수출 상담을 통해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수출 계획 등을 논의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충남도

###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충남도는 환경부 주관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57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사업자 선정에 따라 도는 총사업비 57억원(국비 10억원, 민간투자비 47억원)을 투입해 도내 13개 시군, 67개 공공시설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95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 대상지에 백제문화단지, 안면도자연휴양림, 꽃지해안공원 등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문화·관광시설의 충전취약지역 감소,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원승일 기자 won@

## 주한외교단 초청해

## 부산 홍보여행 개최

13개국 22명 참가... 상호협력 증진  
'글로벌 허브 중추도시' 사업 알리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19~20일 이틀간 주한외국공관장과 관계자 총 13개국 22명을 부산으로 초청하는 '2023 주한외교단 초청 부산 홍보여행(뽀투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교단 초청 부산 홍보여행은 국제적 도시 부산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2017년 처음 개최해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국제적 중심 금융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부산 금융기관을 소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 관계망을 구축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 홍보여행 참가국은 ▲유럽 6

개국(덴마크, 루마니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핀란드) ▲아시아 5개국(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미주 2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총 13개국이다.

시는 이번에 부산을 찾은 주한외교단에 올해가 '글로벌 허브 중추도시 부산'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해임을 알리고, 이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을 소개하며 부산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과 주요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신 강의구 부산영사단장을 비롯한 명예영사와 언론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 경북 쇼핑몰 '사이소' 매출액 38% ↑

소비자 맞춤 마케팅·협업사업 진행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매출이 가파르게 솟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들이 사이소의 지난 달까지 매출액은 1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억원보다 38% 늘었다.

품목별로는 한우, 사과, 쌀 등 농축산물 매출액이 74억원으로 전년 동기 59억원보다 25% 늘었다.

부가가치가 높은 홍삼가공품, 참기름, 과채음료 등 가공식품의 매출액은 28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억원보다 87%가 늘었다.

도는 정례 이벤트(월요·수요특가), 봄소풍·가정의 달 기획전 등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의 효과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구동경제지원사업, 농협 사과·한우 할인행사, 경북도 보건정책과 출산축하쿠폰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도 단위 광역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한 것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 시군 쇼핑몰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이 춤을 추고 있다.

##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열린다

독일 등 국내외 40여 팀 초청

'제23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미마프MIMAF)'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좋을시고 좋을시고!'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미마프'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 예술축제이다.

축제는 독일, 스페인 등 국내외 40여 팀이 초청돼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족시킬 예정

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4년 만에 개최되고, 일정을 여름철에서 5월 봄철로 옮겨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마프는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해외 초청작, 국내 초청작, 목포 로컬 스토리 5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개막놀이는 '힘내라 목포'를 주제로 전국제전 목포 성공개최를 비롯해 관광거점 도시, 문화도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최대의 관심사를 대형 소원등으로 밝혀 성공을 기원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 진주시, 아홉번째 '모모장터' 진행

5개 이전공기관 등 공동 주최

경남 진주시는 충무공동 영천강변과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아홉번째 '모모장터(모모이하는 장터)'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모장터는 진주시와 국토안보연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5개 이전공공기관과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외에도 해피빌더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경남서부보훈지청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영천강변과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 공원 등에서 나누어 개최됐다. 또한 자원순환체험 및 로컬푸드 장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특별히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역 창작활동가들의 기념품 연계 지원을 위해 박람회 동시 개최했으며, 공공기관 관계자 및 지역민들에게 창작활동가들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강소농연합회 및 전통시장 상인회, 마을기업이 참여해 로컬푸드 제품을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